

저소득·노인·장애인 많은 곳 ‘코로나 취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노인이나 장애인, 이주민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이 특히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남지역에서는 곡성군·진도군·함평군·신안군·나주시·영암군 등 6개 시·군이 나머지 시·군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감염병으로 인해 받는 충격은 큰 반면, 보건·의료 등 인프라는 부족해 감염병에 대응하는 역량이 낮았다.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군·구별 감염병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

연구진은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는지(노출), 그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한국행정연구원,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보고서

“지자체 36곳, 감염병 충격 크면서도 대응 인프라 부족”

·사회적 피해를 입기 쉬운지(민감성),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거나 피해의 결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됐는지(대응역량)를 살펴봤다.

노출과 관련해서는 ▲인구밀집도 ▲업무환경 ▲교육환경 ▲외부 유출입 등이, 민감성에 관해서는 ▲생활습관 ▲기저질환 ▲소득수준 ▲빈곤 수준 ▲고용 불안정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세부 지표로 사용됐다. 대응역량은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 ▲대체 이동 수단 ▲사회복지 예산·인력 ▲사회적 신뢰 등을 따졌다.

연구진은 민감성이 높으면서 대응역량은 낮은 지역을 특히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봤다.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충격을 크게 받으면서도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인프라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으로는 ▲강원 태백시·고성군·정선군 ▲경기 안산시 상록구·여주시·연천군·안성시 ▲경북 고령군·영천시·성주군·울진군 ▲경남 고성군·함안군·의령군·남해군·합천군 ▲충남 보령시·서천군·부여군 ▲충북 보은군·단양군 ▲

전남 곡성군·진도군·함평군·신안군·나주시·영암군 ▲전북 진안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무주군·임주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36 곳이 꼽혔다.

이들 지역은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들이 많고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대체로 소득이 낮은 편이다. 동시에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고서는 “민감성이 높은 지역은 감염병 발생 시 치명률이 높고 감염병 확산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이 중증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높은 보건·의료 대응 역량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군·구는 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응역량이 대체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림동 한바퀴 테마투어’ 광주 남구 운영 단체 모집

광주시 남구가 광주·전남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양림동에서 역사와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20일 “건축과 선교 두가지 테마를 녹여낸 전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에게 양림동의 구석구석을 투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림동 한바퀴 테마투어 프로그램’ 운영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테마는 건축과 선교 2가지 분야이다.

현재 광주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문화·건축·관광·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투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테마별 전문 문화해설사 또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해설 인력풀을 갖춰야 하며,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남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옛 도청 ‘빛의 집’ 변신 옛 전남도청 본관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시연회가 펼쳐지고 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으로 ‘빛의 집’이란 주제로 오는 3월중순 개막되는 미디어 파사드는 빛을 주제로 광주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낼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금요일까지 춥다... 전남 일부는 최저 기온 영하 5도 안팎

최저 기온 영하 5도 안팎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금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영하 4~영상 1도, 최고기온 7~11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다”고 전망했다.

21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7~영하 1도, 최고기온은 6~8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22일 일 최저기온은 영하 7~영하 2도, 최고기온은 2~4도로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은 25일까지 일 최저기온

영하 5도 안팎의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21일 오후부터 자정 사이 전남 서해안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22일 오후부터 전남서해안과 영광, 목포, 함평 등 전남 일부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웃러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남동부권을 중심으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으니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감 후보 얼굴 알리기 분주

박혜자 전 의원·강동완 전 총장 북콘서트 열며 정책 홍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박혜자 전 국회의원과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지난 19일 각각 북콘서트를 갖고 자신만의 교육철학과 정책 알리기 나섰다.

‘광주 최초 여성교육감’이란 타이틀로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박 전 의원은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 열린홀에서 ‘혜자표 광주교육 박혜자 북콘서트’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박 전 의원이 이날 선보인 저서 ‘팬데믹시대 미래교육·학교가 문을 닫으니 비로소 학교가 보인다’는 19대 국회의원 교육상임위원회와 제10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 교육전문가 임무를 수

행하며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광주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감 없이 풀어낸 것이다.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도 같은 날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북콘서트는 ‘저자와의 만남’, ‘패널들의 질의응답’, ‘노래 공연’ 등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유튜브 ‘강동완 TV’로 생중계됐다.

행사는 강 전 총장이 자신의 자그마한 삶의 디자인을 이야기한 저서 ‘강동완의 행복레시피’와 교육철학을 담은 ‘강동완의 교육레시피:광주가 학교다’에 대한 설명과 1968년 광주서중학교에

입학했던 친구들과 공저로 출간한 ‘1학년 8반’ 이야기 등 3부로 나눠 진행됐다.

광주의 미래 교육 방향과 관련 강 전 총장은 “과거에는 소위 ‘사’자 돌림의 직업이 최고인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끌어내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현재 광주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가나다 순)는 강동완(67) 전 조선대 총장, 김선호(74) 전 광주효광중 교장, 박혜자(66) 전 국회의원, 이정선(63) 전 6대 광주교대 총장, 이정재(75) 전 2대 광주교대 총장, 정성홍(60)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모두 6명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푸른개미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계림동 649번지 일원 주택 소유자 28일까지

광주시 동구가 푸른개미마을 새뜰사업 일환으로 계림동 649번지 일원 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푸른개미마을 새뜰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47억5000만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대상은 푸른개미마을 내 주거용 건축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도배·정관 등 내부 수리 비용이 지원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동구는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수리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집수리 대상·지원 범위를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 여부, 건축년도

(20년 이상), 수리 범위 등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푸른개미마을 새뜰사업 현장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푸른개미마을 새뜰사업 현장지원센터(062-529-8235-7)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선진의의회

호랑이 기운 받으시고 힘찬새해 되세요

정읍시의회 www.jcc.or.kr